

천재들의 생각법

jakiva@gmail.com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각적 생각법>

Jay) 하나의 단일한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정의 자체로는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을 발휘하는 사람은 드물다. 의식적으로 의심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따져보지 않는 나름의 견해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관점이 언제나 옳지는 않으며,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각적 사고를 하기란 어려운 것일까? 겸손함은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기존의 인식이나 신념을 바꿀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바탕에 있다. 그래서 출발점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의 시각, 관점, 인식의 근거에 맞춰 보여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빈치:

천재의 전형으로 소개되는 다빈치는 그 다재다능함과 함께 재능이 지닌 노력을 통해 발휘된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과학의 시각(관찰과 법칙)과 예술의 시각(상상)을 통합했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그의 정신을 뇌과학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세부적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빈치는 정신을 최대한 넓게 사용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호기심을 풀기 위해 연구했고, 알고 있는 것을 구체화하고 응용하려고 했다. 이는 인간 정신이 얼마든지 제한적인 관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앤디워홀이 성화라고 칭송했고, 존 F. 케네디가 국민처럼 맞이했던 명화. 모나리자의 미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과외사이자 작가인 레너드 쉐라인, <레오나르도의 뇌 Leonard's Brain>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뇌를 분석:

미세한 표정을 감지하는 남다른 감각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좌뇌는 오른쪽 얼굴, 우뇌는 왼쪽 얼굴을 통제한다. 다빈치는 통제가 어려운 왼쪽 얼굴은 속마음을 폭로하는데 얼굴의 미세함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모나리자는 오른쪽 얼굴을 도드라지게 표현했는데 왼쪽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그녀의 미소가 이중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모나리자의 눈썹 부위와 입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빈치는 그림 전체를 봐야만 미소를 볼 수 있게 했고, 이것이 혼란을 야기하고 초상화를 뛰어넘는 심오함을 이 그림에 담은 것이다. * 사물, 사람, 세계를 보는 다빈치의 특별한 시각에 대한 실마리이다.

탁월한 관찰자, 화가, 조각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자:

엄청난 분량의 메모를 했다-수면 아래에서 물이 움직이는 모습, 잠자리 날개의 기능, 보통 사람이 흔들림을 본다면 레오나르도는 각각의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었다.

수천 가지 그림이 담긴 공책과 명화 약 15점을 남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모든 재능을 가질 수 있는가?

수학자, 지질학자, 지도제작자, 식물학자, 음악가, 건축가, 해부학자, 공학자, 천문학자, 기계공, 공학자, 자연주의철학자.

자동차, 낙하산, 잠수함, 잠자리 비행에 기초한 현대 헬리콥터의 전신 설계.

아몰라시 지도(발렌티노 공국 공작인 체사레 보르자 아래서 일하던 시기, 공작을 위해 그린 것): 지도 자체가 예술작품. 극도로 상세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도시의 모든 가옥과 거리들을 빠짐없이 담음. 1km 상공에서 시를 내려다본 모습. 다빈치가 살던 시대에는 데이터도 측량기구도 없었다.

아몰라의 지도(1502년 다빈치, 역사상 최초의 평면도).

*보통사람과는 다른 우주적 재능을 가진 사람의 생각법은 무엇일까? 레오나르도는 자신을 '무학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장점은 극도로 유연한 시각에 있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학 입학도 허가받지 못한 다빈치:

편협한 시각에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호기심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다.

만나는 모든 것에 지성을 사용함: "예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갈 뿐이다."

*인체 해부도: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 간 해부학 연구(30구가 넘는 시체의 배를 가르고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자르고 두개골을 열었다). 정확하면서도 아름다운 세밀화로 인체해부도 작성.

*다빈치는 자연에 감탄했고 자연을 탐구했다: "지식은 경험의 자식이다."

다각적 사고:

특별한 태생 기술(사물을 보는 핵심원리):

르네상스 시대는 원근법을 발견한 시기였다. 다빈치는 원근화법을 치밀하게 연구했는데 더 나아가 원근법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사물의 다양한 면을 표현하기 위해 관찰 위치를 바꾸고, 해부도에서는 근육, 골격, 신체기관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려고 함. 다양한 각도에서 본모습을 '동시에' 생각하고 표현- 구조분해도)

일차원적 사고와 다각적 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특정한 하나로 기꺼이 축소한다.

다빈치의 실험과 관찰은 이음새 없이 예술과 연결되었다. 인체 근육과 힘줄을 정확히 묘사하면서 해부도가 한 편의 그림이 되게 작업. 예술을 과학처럼 다룸.

“과학과 예술을 조합하는 레오나르도의 작업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각을 보여준다(미술사학자 미하엘 라트바인).

*혼란을 주는 다차원: 비트루비우스적 인간(두 가지 다른 자세를 볼 수 있는 그림. 인체의 수학적 비례를 사용한 인체비례도)

*이 그림은 기원전 1세기에 도시건축과 재료과학, ‘완벽한 신체’를 설명했던 로마의 건축가이자 공학자인 비트루비우스의 묘사가 기초. 양팔을 옆으로 뻗은 성인 남자의 몸은 정사각형과 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리. 그는 신체의 중심이 배꼽이라고 생각했다. 배꼽에 컴퍼스를 콧고 원을 그리면 이 원은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지난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의 길이와 양쪽으로 뻗은 양팔의 길이가 정사각형 구성.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고 나중에 도안가들이 그림.

*원에도 정사각형에도 딱 맞는 비례의 인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다빈치뿐임(원의 중심점과 사각형의 중심점을 다르게 함. 정사각형의 중심점은 음부. 원과 정사각형의 두 차원을 서로 겹쳐 놓음으로써 그림의 효과를 배가시킴. 그림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추가함. 한 대상의 여러 다른 차원을 동시에 통합해서 생각한 것)

최후의 만찬:

40평방미터의 넓은 벽에 3년 이상 걸려서 작업함.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후에 도미니크 수도원)의 식당 북쪽 벽. 전통벽화 기법이 아니라 시간을 넉넉히 잡고 천천히 그리는 자신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기법을 시도함(마른 벽에 곧바로 그리고 고는 계산 노른자와 아마인유를 기본으로 하는 혼합물감을 사용함> 계속해서 덧 그리고 수정할 수 있었다).

1498년 완성되었고 다빈치는 생전에 큰 명성을 얻음. 프랑스 국왕 프란츠 1세는 벽을 통째로 떼어 내 프랑스로 가져가려고 함. 그러나 새로운 기법은 막대한 오류였음이 드러남(벽이 물감을 흡수하여 색이 흐려지고 벽이 부스러짐. 수백 년 동안 계속 복원됨).

정확히 계산된 원근법의 오류를 담은 그림: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림을 밑에서 올려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빈치는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를 원했다. 일부러 원근법을 비틀. 예수의 몸이 식탁에 같이 앉은 제자들보다 1.5배 더 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식탁은 더 작아짐. 11명이 앉은 식탁에 13명이 밀착해서 착석. 배경에서도 첫눈에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공간이 실제로 뒤쪽으로 가면서 좁아짐.

-다빈치 코드: 명확해 보이는 그림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말하기 어렵다. 유다의 배신을 말하는가? 아니면 축성식이 행해지는 순간인가?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가지 시간 차원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 식탁 아래로 보이는 겹쳐진 예수의 발에 대해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다: 십자가 자세(압축된 의미의 기적- 레오 스타인버그, “모순을 하나로 합치고, 시간 간격을 순식간에 시각화하고, 대립을 멋지게 조화시키는 지적 형식”). 수수께끼 같은 그림.

교훈:

자신의 두뇌를 어떻게 사용할까?

인간 뇌 반구 모형: 좌뇌, 우뇌 구분. 각 뇌는 다른 영역을 담당한다(좌뇌-합리적, 분석적, 언어/우뇌-창의적, 정서적 영역).

좌뇌와 우뇌는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쪽 뇌를 특정활동에 사용할지에 대한 선호도는 있다: 선호도가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데 성격 특징은 자아상을 형성하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정된 안경).

다빈치는 자유롭게 관점을 바꾼 사람: 균형적인 뇌

양쪽 뇌의 기능적 전문화 정도와 뇌의 구조는 성별, 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 성적 지향 등을 결정함.

-가장 강한 전문화를 보이는 뇌: 남자 오른손잡이 이성애자(좌뇌 우세)

-왼손잡이 뇌: 양쪽 뇌가 전반적으로 대칭적. 여자, 동성애자도 동일함

좌뇌와 우뇌 사이에 다리처럼 놓여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뇌량이 오른손잡이 이성애자 남자보다 왼손잡이 동성애자 남자에게서 경향적으로 더 강함. *통계수치에 유의.

*다빈치는 왼손잡이였고 왼 글씨를 썼고 동성애자였음이 확실시된다 (평생 미혼, 자식이 없고 여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으며 젊은 시절에 동성애적 태도로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음. 은유와 수수께끼를 좋아했다는 사실도 증거(윌레인의 주장) *은유와 수수께끼가 생기려면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우뇌-은유, 몸짓, 유머, 역양 이해. 그러나 이것을 어휘로 이해하려면 우뇌-좌뇌가 협동해야 함).

※미하일 칙센트미하이, <창의성의 즐거움>

“모든 문화에서 남성들은 남성으로 키워지고, 문화적으로 여성성에 해당하는 기질은 무시되고 억눌린다. 여자들은 그 반대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직된 성별 관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정신적으로 자용동주인 사람은 반응 레퍼토리가 두 배로 많기 때문에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를 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사람이 남녀 성별 모두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용동주가 자주 등장하는 그림들: 모나리자 얼굴, 세례자 요한의 초상화, <최후의 만찬>의 제자 요한.

**그러나 다빈치의 생각법을 ‘정신적 자용동주’로 취급한다면 그를 너무 축소하는 것.

좌뇌와 우뇌는 고유한 능력뿐 아니라 고유한 의식을 가졌다(영국 신경심리학자 이언 맥길크리스트, <주인과 심부름꾼>:

뇌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보교이 아니라 한쪽을 억압하는 것. 좌뇌, 우뇌의 인식은 서로 보충하지만 또한 대립한다. 모든 것은 늘 변하고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세계관을 우뇌가 만들어 내는 동안, 세계를 추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화된 생각으로 관찰하는 좌뇌가 우리 시대를 지배한다. 다빈치의 다재다능은 양쪽의 관점과 능력이 우아하게 혼합된 결과일 수도 있다. 전쟁 무기를 설계한 평화주의자, 시장에서 새를 사 와서 방면하는 채식주의자이면서 열정적으로 동물을 해부.

*어떻게 좌뇌의 지배를 깰 수 있을까?

뇌 가소성이론: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이 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와 삶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시선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완전히 유효한 두 가지 대립된 생각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정서-합리, 논리-감정, 비합리적 관점을 허용 →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

경계를 없애는 사람:

다빈치에게는 왜 미완성 작품이 많을까: 다빈치는 살펴봐야 할 관점이 남아 있는 한 만족할 수 없었다. 조화를 감지하는 남다른 감각, 실제로 경험되는 사물들 사이의 연결에 대한 지적-정서적 감각.

다빈치를 통한 완전한 정신의 발달원리:

- 1) 예술의 과학을 공부하라
- 2) 과학의 예술을 공부하라.
- 3) 감각을 발달시켜라, 특히 보는 법을 배우라.
- 4)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었음을 알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평행, 연결, 패턴에서 다빈치는 사물의 연관성을 파악했다.
물결의 움직임과 인간의 머리카락 구조의 유사성. 물에 던져진 돌맹이가 만든 파문과 음파.

다각적 관점이란 경계선을 긋지 않고 대상의 여러 면을 관찰하는 것.

범주 무시: 스푸마토 기법 *sfumato* ('연기'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어에서 파생된 미술용어.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부드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기법). 이전 화가들은 검은 바탕에 윤곽을 그린 다음 채색함.
인물의 윤곽은 몸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공간의 일부.

적용:

남자 혹은 여자로서 자신이 가진 관점을 의심해 본다. 남자 혹은 여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의식해 보고, 다른 성별의 안경을 써본다. 달리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육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완전히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바꿔 보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느껴본다. 익숙하지 않은 관점을 받아들이는 뇌체조 연습